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인 군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군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지난 7월 삼지연군에 펼쳐졌던 격동적인 화북이 우리의 눈앞에 떠오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곳곳,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삼지연군을 찾으실수록 누가 알았으랴. 풀겉에도 그러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무한한 감격으로 하여 영광의 땅은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안의 여러 단위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군이 나아가길 길을 활기 있게 열어주시었다.

삼지연군건설을 통하여 현대문명이 융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협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갈 뿌리가 한다고, 이 과정이 지방건설에서의 일대 도약으로, 하나의 혁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제까지는 발전하는 현실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기준이 필수까지 삼지연군과 군안의 농장들을 현대문명이 융축된 리상군, 리상농장으로 꾸미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한없는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곳 군당위원회일꾼들의 수고와 노력을 치하하시면서 삼지연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통솔하에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으신 우리 원수님이다. 그들이 웃어주는 군당일꾼들의 심정이 어떠랴.

그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제일 앞장에서 가장 훌륭하게 꽃피워갈 결사의 맹세로 심정의 피를 끓여냈다.

뜻 잊을 그날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오늘날 천만군민의 가슴을 새겨서 두드리며 새겨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미기 총출력을 기울이고 결사투쟁의 의지를 다지자. 지역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자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영도 손길아래 온 나라의 모든 군들이 인민의 품과 리상이 활짝 꽃피어나는 락원으로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이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더욱 있게 과시되고있는 내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대할수록 천만 군민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들께로 달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성군에 있는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창설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적인 이야기라는 뜻으로 교시를 하시었다.

세계적인 이야기! 이 고귀한 금언속에 창성군을 수 없이 찾고찾으며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를 잊지 말고 그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내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가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56년전 8월 8일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창성군을 찾으시어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선선회의를 여시고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인다》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신 날이다.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선선회의, 지방당 사람들은 부강조국건설사의 한페이지를 빛나게 장식한 이 회의의 의미깊게 되겠다.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그 회의의 어운은 오늘날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어찌하여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의 산간지대 가운데서도 가장 궁벽하고 외진 이곳 창성에서 그러도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긴 회의를 소집하시었는가.

정전적후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전하의 나날 쌓인 피로를 주실 사이도 없이 파려진 나라를 복구하고 평락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그 도정은는 장성도 있었다.

이것이 어머니수령님께서 이 고장을 별방이나 도시 부럽지 않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주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이곳 사람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시하시고 산골군에 나가길 받으셨는데는 농촌건설, 기나긴 건설노력, 지방에 공업발전을 위하여 일꾼들과 오랜 시간 협의회도 하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그이의 불면불휴의 영도에 의하여 창성땅은 얼마나 가슴벅찬 전변의 새 리상을 펼쳐졌는가. 번듯하게 꾸려진 군소재지와 이따한 문화주택들, 풀피리마다 옥실거리 는 소, 양, 염소 등 품목은 집집마다, 군내 리포원천을 이용하는 지방산업 공장들...

창성의 전변, 그것은 생활의 어느 한 측면,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온군 한 지역의 모든 생활면에서 이룩된 근본적인 변혁이었다. 산을 잘 리용하여 그 덕을 토포히 보고있는 창성땅의 경협을 는 나라에 일반화 하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선선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에서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창성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분석총

화하고 편석회의의 주되는 목적에 대하여 밝히시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결론에서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교육문화사업과 당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군의 위치와 역할, 임무에 대한 리론, 이것은 그 어느 정치가도 내놓지 못한 독창적인 리론이었다. 바로 이 위대한 사상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갔기에 우리 나라는 군을 거점으로 하여 그처럼 빠른 기간에 전면적인 비약을 이룩할수 있었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전환이 일어날수 있었건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리론이 창조된 회의!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강령적지침이 마련된 회의!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선선회의의 주되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 나라에 새로운 《창성》들이 무수히 일떠서게 한 이 회의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의 가슴에 일찌기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추종하게 만들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도자욱이 력히 빛날때이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발표하시어 수령님께서 밝히신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사상을 사상리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고 풍부화하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완벽하게 밝혀졌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우에 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높여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의 차이, 지방군과 산간군의 차이를 줄이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를 려져지도록 하기 위해 바치신 헌신의 자욱이 얼마나 많이 아로새겨졌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직후 그토록 강조하신것은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였다.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나날 사회주의사회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속에서도 자강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제로 건설한 수많은 중공업발전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우리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이 삼삼히 밝혀온다.

만가동의 동을 울리는 중공업발전소들을 만족속에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전기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는 그들의 모범을 는 나라가 따라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중공업발전소건설의 기세 불결속에 자강도뿐 아니라 함경남도도 함경북도도 강화현이 있는 시, 군, 단에서 힘차게 벌어진 중공업발전소건설투쟁은 단순히 자체로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 이것을 계기로 온 나라의 시, 군, 단에서 자기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군의 지방공업과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읍소재지뿐 아니라 농촌리들도 사회주의신경으로 꾸리기 위한 준비바탕이 더욱 세차게 일어난다.

주제 91(2002)년 10월 창성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간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 사람 못살 고장으로 알려졌던 창성땅이 오늘은 살기 좋은 인민

의 락원으로 전변되었다고, 이것이 바로 현지적거점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창성선선회의의 사상과 정신은 참으로 위대하며 그것을 용케 구현해나가는 데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습니다...

실로 창성군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나라의 전민적인 지역을 다같이 발전시키고 산간지대 인민들을 비롯한 모든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고르게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데서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는 역사적인 현지지도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결속에서 여러 농장들이 경제바람을 일으켜 나라의 농업생산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온 나라의 모든 시, 군들이 지방경제발전의 총합적단위로서의 사랑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할수 있는 비약의 나팔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우리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랴.

우리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적거점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어 정력적인 영도로 지방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고 깊이 칭송하였었다.

역사적인 창성선선회의의 사상과 정신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리론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구원되

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역사적인 창성선선회의정신을 구현하며 모든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를 발표하시고 군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중요한 전구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지방들에서 역사적인 창성선선회의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육성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적정신을 구원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주재화, 현대화의 불결이 활활 타오르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져서 땅 어디에서나 로동당당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여 울려져지고있는것 아니랴.

은 나라가 경제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의 땅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전변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비약의 양양된 혁명적열의로 끓여내시고있다.

그 어디에서나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위훈창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불세출의 위인인 우렁찬 선언이 시대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져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지역적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군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전민적부흥을 실현하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가 나타난다.

세월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같은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궁지와 회령도 가슴부풀고 그이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하나가 되어야 할데는 인민의 품과 리상이 꽃피어나는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고야 말 불같은 맹세로 천만의 심장 새겨고 고조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의 손길아래 온 나라의 모든 군들이 현대문명이 융축된 리상군, 일기기도 좋고 살기좋은 인민의 리상향으로 꾸미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한없는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본사기자 김성남

전변의 새 모습을 펼쳐가시는 길에서

사회주의제도수호전의 전초전

주제 102(2013)년 6월 1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창성시로포장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성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화평군에 오니 기분이 좋다고, 화평군으로 오면서 보니 도로도 좋고 읍소재지도 깨끗하다고 만족해하시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당책임비서(당시)동우가 당에서 맡겨주신 200분의 1을 책임지고 일을 더 잘하겠으니 더는 험한 길을 걸지 말라고 하시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신 후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모두 잊지 말고 일을 더 잘하여야 하겠다고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고나서 길을 떠나시었다.

나머진 북방의 산간오지까지 여려차례 찾아오시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어머니장군님,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어머니장군님을 눈물속에 따라서서 일꾼들은 이런 철칙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발휘하며 자체의 힘으로 군생활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선구자가 되리라!

본사기자

다심한 사랑과 은정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숭엄한 격정에 휩싸이신 일꾼들에게 군은 사회주의제도수호전에서 전초전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려면 중대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처럼 온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성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산간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 사람 못살 고장으로 알려졌던 창성땅이 오늘은 살기 좋은 인민

비단섬에 펼쳐진 감격의 화폭

지난 6월 평안북도 신도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로써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시해기습의 한복에 있는 자기들의 고장까지 찾아 오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황금산, 보물산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창성군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주제 51(1962)년 8월 8일 창성군에서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선선회의를 소집하시었고 군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지방공업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활기 있게 밝히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나날 어머니수령님의 사업을 보라헤 드러주시며 농촌을 찾아가셨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불면 불휴의 로고를 마시시며 부림면적이 작고 척박한 산골군에서 로작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등을 발표하시었다.

10월과 주제 99(2001)년 11월 창성군을 찾아주시고 지방공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주시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건국의 앞장에서 달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일꾼들의 가슴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로 부풀어올랐다.

그러는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에 오시시겠다고, 자신께서는 혁명의 성상 백두산을 지적에 바라보며 사는 삼지연군인민들을 늘 생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그 다심한 사랑과 은정이 너무나 가슴벅차게 안겨들어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세실히 로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이 나아가길 길을 활기 있게 열어주시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어머니장군님,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어머니장군님을 눈물속에 따라서서 일꾼들은 이런 철칙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발휘하며 자체의 힘으로 군생활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선구자가 되리라!

비단섬에 펼쳐진 감격의 화폭

지난 6월 평안북도 신도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로써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시해기습의 한복에 있는 자기들의 고장까지 찾아 오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나날 어머니수령님의 사업을 보라헤 드러주시며 농촌을 찾아가셨고 어머니수령님께서서는 불면 불휴의 로고를 마시시며 부림면적이 작고 척박한 산골군에서 로작 《지방경제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등을 발표하시었다.

10월과 주제 99(2001)년 11월 창성군을 찾아주시고 지방공업발전의 앞길을 밝혀주시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삼지연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사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건국의 앞장에서 달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일꾼들의 가슴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로 부풀어올랐다.

본사기자 김성남

북방의 산간오지를 찾으시여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의 원천과 잠재력을 용케 동원리용한다면 근자제로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수 있으며 국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대인민들의 생활을 훨씬 높여나갈수 있다.

이런 숭고한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어머니장군님께서서는 공장과 농촌으로, 바다와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조국방 방방곡곡에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었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강고히 바치시어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10년전 7월 무더위속에서 화평군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을 우리 인민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가산자연보호구를 돌아보시는데 이 곳에서 자체로 건설한 화평군민락소도 찾으시었다.

본사기자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려갈 결의에 넘쳐있다. - 창성군에서 - 김광림 찍음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면 자기 분야의 기관차가 될수 있다

경남 배수리공장 일군들의 최근년간 사업성과를 놓고

오늘 우리 당은 령도업적단위들이 모든 분야에서 기관차, 견인기가 되어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견인불발의 의지로 뚫고 헤쳐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도 남달린 승전의 포성을 울릴것을 바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경남배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두해전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대형무연집배 《자력》호를 자체의 힘으로 짓는 기적을 창조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특별감사를 받아안았다. 올해에만 하여도 550t만능어선과 《황금해》, 《단풍》호계열의 고기배 10여척, 해저탐사용선박을 무어낸 공장에서 내달리는 자립경제의 본보기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오늘 공장은 자력갱생의 궤도에서 과학기술을 동력으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자립경제의 본보기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강에하는 최고병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자력갱생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자력갱생의 신념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성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지침으로 하여 생산을 끝낼이리 장성시키는것은 령도업적단위들에게 내서는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활성화문제를 당의 령도업적을 내는 사업과 직결된 중대사로 보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공장안팎을 빈틈없이 꾸러놓은것으로 만족할수는 없다. 이처럼 귀중한 공장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위해 배수리공장의 하능같은 은덕에 기어이 생산적양양으로 보답하자. 일군들의 절절한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울리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풀을 최대한 발휘해서 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대단한 작전을 펼치었다.

선박공업부문은 금속, 기계, 화학, 건설 등 많은 분야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여러 생산공정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원료와 자재의 가지주도 해야될 일이 많다.

생산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술한 문제들중에서 일군들은 중심공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몇년전 공장의 현행생산과 전망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진행된 회의에서 리대성지배인은 석탄가스발전소를 건설할 확고한 결심을 터놓았다. 이미 전기문제해결을 공장의 운명을 건 중심공리로 간주하고 방도를 모색하는 지배인은 우리 나라의 무연탄을 가스화하여 전기를 자력으로 생산하는 속성각을 무르익히고있었던것이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놀라움을 표시했다. 지난 시기 전기때문에 수십대의 소형발동발전기도 설치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지배인은 전기문제를 풀지 못하는 기본원인이 객관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머리속에 잠재해있는 의의성에 있다고 보았다.

어느 지역,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자체의 실정과 실리에 맞게 혁명적일 때 혁명적일 때 전기문제의 결정적인 해결을 볼수 있는것이다.

이 공장의 일군들이 잘한것은 또한 전기문제를 해결하는것과 함께 용접공정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인것이다.

물을 떠난 논농사에 대해 생각할수 없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노르웨이공산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부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는 10일 의례방문 하였습니다. 리수용동지는 10일 의례방문 하였습니다. 리수용동지는 10일 의례방문 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단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체육성 부상 원길우동지의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수단인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0일 평양을 출발하여 귀환하는 내각부총리 리경남동지, 체육성 김일국동지, 판계부분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 라오스주석에게 신임장서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대사가 7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신임장서를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분남 리관락 주석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리관락대사가 전하였다.

혁신관망 정보실 높은 책임성을 안고

지방의 기술발전을 위해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처음 정보실 실장으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는 당의 신뢰와 기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지침으로 하여 생산을 끝낼이리 장성시키는것은 령도업적단위들에게 내서는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활성화문제를 당의 령도업적을 내는 사업과 직결된 중대사로 보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풀을 최대한 발휘해서 생산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대단한 작전을 펼치었다.

선박공업부문은 금속, 기계, 화학, 건설 등 많은 분야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여러 생산공정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원료와 자재의 가지주도 해야될 일이 많다.

생산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술한 문제들중에서 일군들은 중심공리를 틀어쥐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 용접작업을 떠난 배우나 수리에 대해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만큼 용접작업은 공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품도 제일 많이 드는 공정이며 따라서 용접봉은 탄약이나 같다.

이러한 자재의 튼튼한 용접봉생산기구가 꾸려져있는 상태에서 공장의 일군들이 새로운 탄산가스용접기술을 받아들여지고 달라붙었을 때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다른 용접봉생산기구를 꾸리느라 고생할게 있으나 하는것이었다.

그러나 일군들은 용접속도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하나의 비약인 새로운 용접기술-탄산가스용접기술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원천들과의 공격구명을 내리었다. 새로운 용접기술의 우월성과 경제적실리에 대한 집중적인 해설이 진행됨에 따라 자력갱생의 신념을 단장약한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한사발같이 떨쳐나섰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용접공정들을 풀어야 하는 탄산가스용접기술과 우리 나라에서의 첫 탄산가스용접심전생선공정이 훌륭히 일떠서기까지는 앞으로 비상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고 결사적인 두뇌전투였다. 철두철미 우리 나라의 자재, 자체의 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를 밑거름이 새우는 기업전략은 성공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처음 막돌과 용접봉보다, 과철수집사업이 포기되었을 때 종업원들은 별다른 불만을 품지 않고 그 결과로 매해 수천mm의 막돌이 거저 생겨나고 수백의 과철과 수십의 용접봉이 재사용되는 현실을 보면서 인식이 확 달라졌다. 일군들은 필요 없는 지출항목을 없애고 소비를 결정적으로 줄이면서 실리에 맞지 않는 설비들을 대담하게 폐기하는 등 하나의 품을 들어 밀련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붙여나갔다.

이 과정에 31(제)차와 50(주)제라를 비롯한 수십대의 운수기재들과 중요설비들이 원상복구되어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녀성로력은 다그쳐서로, 관리일군들은 중요한 예비로력으로 전환되었으며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원들로 기술혁신파세우행의 일정에 섰다.

일군들은 기업전략수립도 철저히 실리타산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내밀어 살림을 들여나갔다.

해마다 년초에는 전해의 지출과 수익을 종합적으로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세해의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기업전략을 수립한다. 철두철미 우리 나라의 자재, 자체의 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를 밑거름이 새우는 기업전략은 성공할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 생산활성화의 동용을 높이 올려주고있는 공장을 두고 방망에도 끄떡없이 두터운 얼음장을 부수며 전진하는 《레빈심》이라 부르는것이 우연치 않다.

공장의 눈부신 현실은 이곳 일군들처럼 당의 령도업적단위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전략적투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걸사적으로 달려붙을 때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현대적인 자력갱생기구를 하나하나 꾸리고 가공시건 결과 오늘 공장은 전기적용을 모르는 공장, 노력문제를 해결한 공장, 원자 손을 내지 않는 공장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달천땅의 참된 간호원

달천영예군인료양소 간호원

류은실동무에 대한 이야기

달천영예군인료양소의 류은실동무는 단발머리처럼서서 몇몇이 오를까 30여년을 간호원으로 일해오고있다.

오랜 세월 누가 보진말한 한 직종에서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흔히 애국자라고 부르며 존경한다.

하다면 당에서 누구보다 아끼고 내세우는 영예군인들을 돌보며 한생을 희생간호원직업 살아가는 그 공로는 무엇보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하는 사람에겐 있어서 참된 삶의 가치도 행복도 수렁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류은실동무는 룡양소의 방물나루 밑에서 우리는 류은실동무와 마주했다.

세소하고 연약한 너인의 모습을 대하느라니 그 우묵의 어디에 그렇듯 고결하고 강인한 것이 깃들어있을가 하는 생각에 눈금이 뜨리워올랐다.

류은실동무는 어떻게 되어 영예군인들의 간호원이 되었는다고 묻는 우리에게 흔연히 대답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예군인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었습니까.》

류은실동무의 아버지는 수십년을 달천영예군인료양소에서 조제사로 일한 오랜 보건의료인이었다.

영예군인들에게 쏟고 고투하였다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면 손이이는 의복이 어머니가 꾸려준 저녁밥을 들고 룡양소로 향하곤 하였다.

어느날 손이이는 조제실의 담반마다에 가족가득 쌓여있는 고려약부류들을 둘러보며 아버지

에게 무슨 악을 그렇게 많이 단든가고 물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말없이 땅을 바라보았다.

《손이아, 오늘 《로동신문》에 무슨 소식이 실렸는지 아니?》

1980년 4월 4일, 《로동신문》에는 당시 우리 인민뿐 아니라 온 세상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의법》이 대서특필되었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인민보건의법은 국가의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영예군인, 인민군부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들인다는 구절도 들어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손이이에게 약효가 좋고 좋아 종달새가 다리를 하고도 날아갔다는 전설이 깃든 달천영예군인료양소의 종달은천에 대하여, 내려있던 그 세월 지어, 자분가늬들의 유흥지로 되었던 종달은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에 의하여 영예군인들을 위한 룡양소가 일떠선 데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예군인들을 위해 피흘려서 온 영예군인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보아주는 것은 혁명동지의 마땅한 도리이며 본분이라고 하시었다. 아버지는 우리 수령님의 그 뜻을 받드는거란다.》

그후에도 아버지는 영예군인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설같은 사랑에 대하여 자주 들려주었다.

류은실동무는 지금도 사랑하는 딸과 함께 첫 출근길에 나선 그날 시종 기쁨을 잊지 못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흔히 사람들은 간호원의 일은 험한단 정성과 각오가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인민병원간호원의 일도 일에 부릴진대 때 사람 손끝에 올려놓고 돌보듯 해야 하는 특류영예군인들을 돌보며 류은실동무가 흘린 땀과 바친 노력이야 오죽하겠는가.

류은실동무는 조국보위초소에서 피흘려 싸운 영예군인들을 한명이라도 더 완치시키는 것이 당의 격정을 덜어내는 길이라는데 매일, 매 시각 자각하며 살았다.

하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영예군인들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팔과 다리를 잃은 영예군인들에게는 손과 발이 되어 주느라 그로써 바쁜 속에서도 베일이다시피 수심명 영예군인들의 땀에 하고 그들의 입맛을 돋구어주기 위해 기술을 차며 툴툴거리고 달려가기도 하였다.

몇해전 어느 봄날 바람새한 들판을 종일도록 때리는 한 녀성이 있었다. 영예군인의 치료에 매달리는 종달은의 의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달려나온 류은실동무였다. 하지만 금방 새악이 들기 시작한 마디를 찾지 못한 한겨울에 딸기찾기만같이 나 힘들었다. 간간신고끝에 겨우 한참도 되나마나 마디를 좀 깨고 돌아서는 류은실동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다.

료양소가 뻗어 바라보이는 길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들렸다. 그날 류은실동무는 밤이 깊어져서 마디가 마디가 마디가 마디를 가지고 룡양소로 돌아왔다. 피로를 미처 가시내 없이 자정이 넘도록 눈을 달이는 류은실동무는 그 후 어려운 한 간호원이 그 정성을 영예군인에게 퍼어 영예군인들의 식량보급에 이바지하곤 하였다.

《환자가 알면 약이 안된것

아오는 걸음으로 가마뚜정부터 얼어붙은 류은실동무의 아들 곽용이는 흰쌀밥이 담겨진 밥그릇을 보고 환성을 질렀다. 케일이 금방이 생일인데 하던 전날에 집을 찾아왔던 외할머니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런데 그 밥 그릇이 류은실동무는 물론 온 집안을 울리게 될 줄 어이 알았랴.

얼마후 집에 들어선 류은실동무는 집안마다 놓여진 밥그릇을 들고 곽용이를 데리고 집안으로 돌아왔다. 그날 류은실동무는 영예군인에게 대접하려고 눈물을 삼키며 지은 밥이었다.

아직은 제 밥그릇을 다 비우고도 부모의 밥그릇을 넘보며 선뜻 숟가락을 놓기 아쉬워한 어린 나이, 어머니가 어찌서 식구들의 밥그릇을 넘보며 넘보며 영예군인들에게는 흰쌀밥을 해주는가를 리해하지면 너무도 어린 자에게 이쁜 소리를 한것이 마음에 걸려 류은실동무는 온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그날 류은실동무는 눈물자국이 찍혀있는 영예군인들을 맡겨주었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눈 마음뿐이고 부족한것이 너무도 많구나.

류은실동무는 언제나 영예군인들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자기를 대신하여 집안의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하면서 마음의 기둥이 되어준 남편에게도, 왠 속에서도 딸의 걸음이 험터덜거릴 때 언제 한번 내색하지 않는 아버지에 한번 내색하지 않는 딸을 수십년째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다.

고난의 시기에 류은실동무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은 영예군인

들은 간호원으로서 류은실동무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우리 룡양소에서 치료를 받은 영예군인들이 모두 혁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라고 맺맺이 말씀드리고싶은것이였다.

지난해 5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수도의 한 영예군인들의 일부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이 접하였을 때에도 류은실동무는 정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그렇게 이르고싶었다.

영예군인들에게 간호원의 정성뿐 아니라 친부모, 친형육의 정까지 장그리 바치는 류은실동무에게서 가장 큰 자랑은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고있다는 그 생각이었다.

영예군인들은 누구나 류은실동무를 우리 간호원이라고 정답게 부른다.

우리 간호원! 류은실동무가 수십년세월 묵묵히 영예군인들을 위해 기울인 불같은 사랑, 남모르는 헌신과 무한한 열정에 대한 가지가지의 감동같은 사연들이 그 부름속에 다 응축되어 있다. 그것은 그에게 안겨준 크나큰 영예이고 값없는 보람이였다.

* * *

당에서 격정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이드릴 일념을 안고 수십년세월 영예군인들을 위해 뜨거운 정성을 바쳐온 나날에 류은실동무는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니었고 국가적인 여러 대회에도 참가하였다.

류은실동무의 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인생의 행복도 영광도 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주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는 진정

승호군 리천리에 가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건물들이 있다. 승호군 리천고급중학교의 교사들이다.

예로부터 배나무가 많고 두 가지 합쳐지는 곳이 자리잡은 마을이란 뜻에서 리천리로 불리우는 이곳에 사람들의 정한을 자아내며 번듯하게 들어앉은 학교 건물들은 어디를 보아도 손색이 없다.

교육조건과 환경이 완전히 일신된 이 학교의 오늘을 위해 승호군의 일꾼들이 바친 땀과 노력은 그 얼마였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몇해전 2월 어느날이었다. 리천고급중학교 2호교사의 구수희동무는 간헐적 살해병의 환자가 있었다. 승호군의 일꾼들이었다.

《보수나 해서는 안되겠구만, 이에 털어버리고 새로 지어야겠소.》

누구에라 없이 흔 자소리처럼 뇌이는 군당책임일군의 말이였다.

군당책임일군 신태환동무가 학교건설을 자기들끼리 맡겨줄 것을 제기했다. 리승식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건설팀이 조직되었다.

짧은 기간에 넓은 교사를 열 어떤 전설같은 기적과기적 무를 버렸다. 원래 설계안에 세 교사를 운동장의 한쪽에 세우는것으로 되어있었다. 건설자들과 함께 기초를 파나가던 리승식동무가 문득 일손을 멈추었다. 그는 운동장에 뛰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깊이 바라보았다.

(지금 위치에 세 교사를 지으면 운동장이 좁아지지 않겠는가.)

이런데 생각이 미친 리승식동무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군당책임일군을 찾아갔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군당책임일군은 옳은 생각이 라고 하면서 세 교사건설에서 기본은 교육적으로 구를 찾아라며 흥을 돋구고 고무해주었다. 그렇게 되어 세 교사위치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군당책임일군은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천정공과드레지작업이 진행되던 날 군당책임일군의 가족들이 지원물자를 가져오고 찾아왔다. 건설장에 자주 찾아오는 그들과 허물없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이리저리 둘러보며 건설자들이 이리다 저기다 다 거닐다가 게 아년가고 물음을 건넰다.

《부모들이 품을 많이 들여야 우리 자신이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게 아닙니까.》

가족들의 말에 모두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전문의부미장을 끌고내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구수희동무가 말했다. 하지만 건설자들은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새 교사를 안겨줄 일념으로 건설팀을 중단없이 벌려나갔다. 드디어 몇해 전 교사가 번듯이 일떠섰다. 일꾼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교육의 정보화

백두전역에 정성의 꽃을 피워가며 216사단 현장지휘부 보건분과 의료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치주의보검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료일군들이 먼저 관심을 들인 문제는 군의 지대적특성이였다.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되지 못한 대다수의 지휘성원들과 건설자들에게 정성적으로 보내주는 안을 내놓고 스스로 맡아나섰다.

그리고 많은 량의 원료를 자체로 구입하여 몰락상을 시작하였다. 주 1차례 현장에 나가 군인건설자들에게 물약을 넘겨주었다.

지난 한달 남짓한 기간에 그가 생산하여 예방치료에 리용한 기침물약은 적지 않다. 정성의 꽃은 의료일군들속에서 자신의 불길로 타탄되었다.

이 나날에 분과에서는 생리적 식염수를 비롯한 많은 수액제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전투현장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단위별로 맡은 구간을 정산관리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모든 프라즈, 우물, 샘물 등에 감시초소를 만들고 매달 정성적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였다.

보건성 중앙위생방역소 의사 장인식동무를 비롯한 의료

총의약품들과 구급의료기까지 구비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건강검진과 위생선진, 치료사업도 정상화하면서 그에 대한 총화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온갖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김만유병원에서 달려나온 의사 한명실동무는 지난 4년간 수만명, 하루 평균 20여명의 돌격대원들과 군인의 주민들에 대한 멘트검사를 중단없이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방일동무는 생명이 경각에 이른 한 로인을 소생시키고 여러 달동안 그의 집을 오가며 완쾌시켰다.

의사 권오경, 김주혁동무는 군인민병원에 있던 중환자들에 대한 수백건의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하는데 이바지하였고 의사 장영준동무는 주민들의 뇌혈병을 완전히 고칠 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수술을 성과적으로 하였다.

어찌 이렇뿐이랴. 군인민병원에서 제기되는 구급환자에 대한 협의회들에 참가하여 소생방도를 내놓는 조선적십자총합병원의 의사 조광범동무, 수차례 걸쳐 자기의 피부를 바치면서 환자치료에 이바지한 평양민병원의 의사 최철성동무, 친혈육의 정으로 환자를 정성다해 돌보는 보건성 지파총합병원의 의사 남순길, 간호원인 김만유병원의 김해순, 최진주, 평양산원의 림옥향동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을 지니고 치료예방사업에 신혈을 기울이고있는 의료일군들의 이렇듯 뜨거운 정에 반들려 모든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왕성한 투지와 정열을 발휘하며 삼지천군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글 및 사진 현지도보단

인민의 요구와 리의를 첫자리에 놓고 천마광산 일군들

천마광산의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헌신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의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적으로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광산일군은 자연호흡식수도화공사를 진행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것은 종업원세대들에 수도물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원만히 풀자면 수질이 좋은 물원천이 있는 지구에 수혈시설을 건설하고 수도화공사를 진행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수혈지공사란 하자고 해도 세멘트와

모래 등 자재들을 높은 곳까지 동적으로 운반하여야 하였다. 더욱 난제로 되는것은 바위로 되어있는 수km의 구간을 깨고 수도관을 묻어야 하는것으로 하여 일부 일군들은 머리만 기웃거리었다.

이때 건설호조중앙위원회장이 이렇게 말하였다.

《수도화공사가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틀어쥎고 뜻을 피우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대담하게 일관을 벌린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회의에서는 명령을 집행하여 며칠만에 자연호흡식수도화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수도화공사가 시작되었다. 일군들은 앞장에서 세멘트와 모래를 등짐으로 겨나르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리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얼마전 신앙군을 찾았던 우리는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으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습기구에 살고있는 한 혁명가유자녀로인인 군당위원회원으로 보낸 감사편지였다.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 것은 한 고마운 녀인의 아름다운 소령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로인의 편지에는 함포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적혀있었다.

몇해전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던 어느날 밤이었다.

창방을 하얏던이 바라보며 서 있는 로인의 눈앞에 얼마전 알게 된 고마운 녀인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아들을 돌격대에 보내고 로인내외끼리 사는 혁명가유자녀가녀라고 몇몇이 생일날은 물론 수시로 찾아와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새라 세심히 돌보아주

보안제만은 비웃으며 꼭 감싸고있었던것이 아니냐.

녀인은 밝게 웃고있었지만 로인내외의 얼굴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흐르고있었다.

편지에 담겨진 사연은 비단이불이 아니었다.

얼마전 로인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매일같이 보양제를

함된 봉사자. 그가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한통의 편지에 적힌것만이 아니였음을 우리는 상임관리소에 대한 취재에서 더 잘 알게 되었다.

군안의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 사업은 물론 중요 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도 앞장서서 그는 윤영순동무, 그는 얼마전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니었다.

바로 이런 인민의 참된 봉사자들이 있어내 나라 그 어디에서나 로동당대선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것이다.

오늘도 윤영순동무는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인민을 위한 복구의 길, 혁명 애국의 길을 뜻있게 이어나가고있다.

유 광 진

친혈육의 정을 안고

친혈육의 정을 안고 찾아오는 그를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물론 환자들까지도 친밀한줄로만 알았다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인가. 이렇게 수년세월 한 혁명가유자녀가정에 친혈육의 정을 기울여온 그 녀인은 신앙군상임관리소에서 일하고있는 윤영순동무였다.

군안의 주민들이 당과 국가의 인민적사회의 고마움을 실지로 느낄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인민의



현장지휘부 보건분과 의료일군들이 군인건설자들에게 물약을 넘겨주고 있다.

